

엘리트 새 화재감지기 개발 전자통신연구소 주문형 반도체 개발

엘리트

새 화재감지기

화재경보기 전문업체인 엘리트가 반도체칩을 이용,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광전식감지기를 개발했다.

이 회사가 1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한 이 제품은 반도체칩으로 부품을 소형화해 크기가 기존 제품의 3분의 2수준이다.

기존제품이 전자파로 인해 오작동하는 단점을 보완, 이 제품은 전자파로 인한 작동불량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. 광전식감지기는 공기중 연기가 일정농도에 달할때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 경보음을 울리도록 하는 소방장치이다.

지난 1월 중국으로부터 이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은 이 회사는 국내업체로는 최초로 이달중 중국에 3만개를 수출한다.

최근 보낸 샘플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이 좋아 올해 중국수출물량이 10만개(10억원상당)가량에 이를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있다.

인도네시아와 인도 등과도 수출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중이어서 이 회사의 수출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.

전자통신연구소

주문형 반도체

동영상을 전송하기 위해 신호를 압축하는 기능이 있는 주문형반도체가 개발됐다.

韓國전자통신연구소는 MPEG-2(동영상압축 표준) 인코더시스템을 소형화한 주문형반도체인 MPEG-2 前처리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.

이 칩은 외부로부터 입력된 영상신호를 MPEG-2 인코더시스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칩으로 ▲비디오동기신호검출 ▲타이밍신호발생기능 ▲컬러신호포맷변환 ▲장면전환검출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.

전자통신연구소는 이 칩이 디지털TV 비디오 인코더 뿐만 아니라 HDTV(고화질TV) 인코더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.

또, 이 칩은 데스크톱 PC용 고화질 비디오코덱을 비롯, 비디오서버용 비디오인코더 등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, 비디오인코더의 가격도 낮출 수 있어 각종 멀티미디어서비스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**발특9602**

